



나도 아직 매일이 시행착오라네

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
사람 냄새 나는 기자가 되겠다던 풋내기 수습(修習).

하지만 울기만 했고
땀 냄새뿐이던 수년의 시간은 수습(收拾)뿐이었다

언젠간 나도 좋은 기자가 되겠지 라던 막연한 꿈은
실로 이루기 어려운 현실임을 깨닫는다

그럼에도 내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
수십 년의 세월을 겪고도 자신을 낮추는
선배들의 말 한마디다

“나도 아직 매일이 시행착오라네” 